

「農家月令歌」에 對한 考察

金 基 卓

<目 次>	
一. 序	四. 詩經·禮記·農家月令·田家月
二. 「月令」의 概念	令의 類似性
三. 農家 月令歌의 內容	五. 前期歌辭의 關係와 製作動因
1. 信仰儀禮의 年中行事	六. 結
2. 生業曆의 生產活動	

一. 序

農家月令歌는 19C初 耘逋 丁學游가 農村의 年中行事와 風俗을 內容으로
重農思想을 強調하는 長篇 月令體 歌辭이다. 翱前의 農書로 <農家月令>
<田家月令> 等이 있었으나 漢字로 記錄된 農業理論書임에 比하여, 本歌는
우리말로 읊을 수 있다는 點에서 農民에 보다 接近한 農歌라는데 意義가 있
다.

本歌가 農村生活을 表現, 農民을 啓導하려는 데 그 創作意圖가 있기에 本
稿에서는 傳來의 歲時行事를 通한 信仰儀禮의 面과 農村生活과 關連된 生
業曆의 面에 主眼을 두고 內容을 살피며, 또 以前의 一連의 類似作品과의
對比도 試圖해 보았다.

二. 月令의 概念

月令이란 概念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月令이란 語彙가 使用된 各文獻의
例를 보면, 「禮記」의 月令篇 序에

「呂不韋集諸儒者 十二月紀名曰 呂氏春秋篇首 皆有月令 言十二月政令所行也 月用
夏正令則 雜舉三代及秦事禮家記事者 抄合爲此篇」

辭源의 楊升菴外集에

「呂不韋月令 自東風解凍 至水澤復堅 後魏始入懸 爲七十二候 其所載與夏小正 淮南子時則訓管子及汲家書 互有出入 朱文公作儀禮經傳通解 備引之」

後漢書에

「作樂器 隨月律 正月律中太簇 二月律中夾鍾 三月律中姑洗 四月律中仲呂 五月律中蕤賓 六月律中林鍾 七月律中夷則 八月律中南呂 九月律中無射 十月律中應鍾 十一月律中黃鍾 十二月律中大呂 月律者 謂月令」

月令疏引鄭氏 目錄

「按鄭目錄 云名曰 月令者以其紀 十二月政之所行也 本呂氏春秋 十二月紀之首章也 禮家好事 抄合爲此篇」

이라고 하였다. 以上 記錄中の 「月令」이란 우선 每月의 節候를 袋아 떠는 政令으로서 「禮記」의 月令篇 以前부터 사용되었으며 政令의 기록을 의미한다고 본다. 月令의 「月」은 달(月)을 가리키고 「令」은 政令으로서 十二個月의 七十二候에 따라 떠는 時候와 같은 뜻으로 通할 수 있다. 그리고 「集韻」과 「正韻」에 보면 「令」은 “律也, 法也”라 했고 「前漢書」에서는 “時令”이라 하여 時候를前提하여 使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에서는 「令」을 “使也, 命也”라 하였으므로 政令 혹은 施令의 의미로서 “時令에 따라 떠는 令”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月令」은 일년 열두달의 各 節候에 따라 行하는 行事 内容을 記錄하여 每月에 맞는 農事를 經營하도록 指示한 政令 혹은 時令이라 본다.

우리 나라의 上代 文獻에서도 「禮記」의 月令이라는 말이 자주 遷用되어 왔음을 찾아 볼 수 있는데 高麗史에 보면

「按月令 立春前出土牛 以示農事之早晚 請舉故事 以時行之」(世家 卷第十三 成宗條)

「乙亥教曰 禮記季春之月 省園囿 去絅桔 內外法司 宜遵月令 以導陽和 用爲恒式」(世家 卷第二十五 顯宗九年二月條)

「己卯御請謙閣 命國子祭酒鄭克永 講禮月令」(世家 卷第十四 睿宗十五年六月條)

「辛巳御大明宮壽樂堂 命翰林學士金富儀 講月令」(世家 卷第十六 仁宗十二年六月條)

이라고 하여 모두 禮記 月令篇을 그대로 따를 것을 提請하는 글에 쓰였고
睿宗條와 仁宗條에서는 王이 鄭克永과 金富儀에게 講義하도록 命하였음을
볼 때 高麗代의 年中行事는 「禮記」月令의 影響을 받아 왔고, 그외 他 文獻
에도 그대로 使用하였음을 볼 수 있다.¹⁾ 그리고 洪錫謨의 「東國歲時記」에
보면

「按崔寔月令 正月潔祀祖廟 飲椒柏酒」(正月 元旦條)

「按崔寔月令 仲春之月 天子乃開冰 先薦寢廟 國制亦然」(二月 月條按)

「崔寔月令 孟冬之月 乃命將帥講武 習射御角力 令之解戰 即此而乃兵勢也」(五月 端午條)

이라 하였는데 後漢人 崔寔은 「土農工商」四民의 年中行事 内容을 具體的
으로 細分化해서 月令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令>이란
時候의 意味로 해석되어지는데, 「月令」도 每月 氣候風物을 記錄하는時候로
서 年中行事와 通할 수 있는 時季性이 強調된 말이며²⁾ 上代의 農業採集
生產活動에 直接 적용될 수 있는 月別行事表의 구실을 한 것이다. 이것은
農村의 生業이 開始함과 同時に 播種, 除草, 收穫, 貯藏等 農業의 諸般 生
產活動이 季節의 變化表示에 따라 이루어짐으로 二十四氣 七十二候로 나누
는時候.³⁾와 긴밀한 關聯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農家月歌令 역시 季
節의 變化에 따라 民間信仰儀禮와 農業生產活動을 순수한 한글체 歌辭로 記
述하여 平民들에게 直接 읽혀서 農事일을 失時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三. 農家月令歌의 内容

「農家月令歌」는 그 製作年代가 확실하게 傳해지지 않고 있으나 耘逋公이
一平生 農業에 從事하면서 創作하였기 때문에 19C初 純祖乃至憲宗 때 뒤
것으로 본다. 主로 農家를 소재로 하여 지은 韻文의인 性格의 長篇歌辭
로서 農村의 生活을 精巧하게 月에 따라 描寫한 連章體 作品이다. 그 内

1) 「閏月 門下侍中劉璠等 奏民庶疫疫虧 陰陽愆伏 皆刑政不 時所致也 謹按月令三月
節 省囹圄去桎梏 無肆掠 止獄所 四月中氣挺重囚 出輕擊 七月 中氣 繕囹圄」(高麗史
節要 卷三顯宗條)

2) 李杜鉉, 「辟邪進慶의 歲時風俗」(金亨奎博士 頌壽紀念 論文集, 서울, 一潮閣刊,
1971), p. 443

3) 「以閏月定 四時成歲(傳) 一歲十二月, 月三十日」(書經·堯典), 「方氏曰 積六候曰
成月 故一歲則有 七十二候 三候為一氣 積六氣而成時 故一歲則有 二十四氣」(玉海)

容은 時候에 따라 變하는 農事에 關한 일들, 信仰儀禮의 年中行事와 人情等을 그려서 一年동안의 行事を 이야기한 한글체 歌辭다. 歌辭는 총 1,012句로서 李相寶 教授가 주장한 12月令을 둘로 區分지워서 結句로 만들어 14段落으로 나누는데 대하여⁵⁾ 동조하는 바이다. 이 歌辭의 作者가 平민이 아니고 兩班貴族이므로 내용이 모두 指示的, 教訓의 年中行事와 人情等을 강조하고 있다. 本歌는 月令體로서 內容을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歲時風俗을 中心한 民俗學의 信仰儀禮이고 또 하나는 農家를 中心한 生業曆의 面으로, 이들을 나누어 細部의 作品構性을 밝히고자 한다.

1. 信仰儀禮의 年中行事

上代부터 「農」을 天下之大本으로 여겨온 韓民族은 「元日相慶是日拜日月神」이라 한바와 같이 한해 동안 雨順風調를 祈願하는 心情에서 神에게 行祭祀하는 行爲는 農耕儀禮로서 民間信仰과 年中行事 더불어 어느 農耕民族에게나 있는 것인데 특히 農耕을 為한 信仰儀禮는 우리 나라 農村生活에 있어서支配的 生活慣習이 되어 왔으며, 民間信仰과 年中行事에 根幹의 구실을 해왔음⁶⁾을 本歌는 말해주고 있다.

上代以前 原始人們의 二大關心事는 食物과 生殖이라 하겠다. 이 두가지는 人間들이 季節을 調節하기 為한 呦術儀禮에 依하여 무엇보다도 食物을 얻으려고 季節祭(seasonal festiavl) 또는 周期的 祭儀(periodic festival)가 發生케 하였는데⁷⁾ 이것은 곧 農耕民族들이 播種에서부터 收穫에 까지 一回를 周期로 한 祭儀라 하겠다. 이러한 季節祭는 上代部族國家의 天神祭를 비롯하여 그 後 八關會, 燃燈會와 같은 完成形態의 國家的 祭儀로 發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國家的 祭儀도 結局은 原始的 村落共同體 속에서 成長한 儀禮의 年中行事에을 둔 根源 年中行事로 上昇한 祭儀는 피하고 여기서는 다만 季節의 信仰儀禮,豫祝, 占歲의 年中行事와 歲時風俗을 살피고자 한다.

「農家月令歌」에서는 他 月令體歌와는 달리 위에 지적한 信仰儀禮의 年中行事와 歲時風俗이 자세하게 紹介되어 上代人們의 共同體의 民間娛樂 및 儀

5) 李相寶, 「농가 월령가에 대한 연구」(明知大學 國語國文學會刊 명지어문학 VOL. 4, 1970)p. 38

6) 金宅圭; 『韓國部落慣習史』(韓國文化史大系 Vol. IV, 風俗·藝術篇,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刊, 1970), p. 639

7) J. E. Harrison; Ancient Art and Ritual(Tokyo, 1961), p. 50

禮行爲를 자세하게 엿볼 수 있다(別表 參照). 아울러 農神二穀神의 降臨을 爲한 各種 占歲的 行事が 年初에 集中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農事의 豊凶를 爲해서 年初에 行해지는 豫祝的 農耕儀禮라 하겠다. 上代人們은 星宿를 通하여 豊凶을 占친 例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⁸⁾ 本歌의 正月令에 나타난 行事を 보면,

「상원날⁹⁾ 달을 보아 水早을 안다하니
老農의 徵驗이라 大綱은 斟酌누니
……<中 略>……
언제 불너 더위팔기 달마지 끼불혀기
흘너오는 풍속이오 아ه들 노리로다.」(農家月令歌 正月令)
「二月은 仲春이라 경칩춘분 결기로다.
初六日 졸생이는 豊凶을 안다하되
스무날 陰晴으로 大綱을 斟酌누니
반갑다 봄바람이 依舊이 門을여니
말낫던 풀풀하는 속님히 萌動한다.」(上同 二月令)

하여 年初의 占歲的 行事로서 달맞이(望月), 菓불거기, 實果나무 보굿깎기 및 시집보내기와 占農으로 졸생이보기¹⁰⁾, 晴陰보기¹¹⁾ 等으로 占農의 民俗놀이와 그의 間接的인 占歲的 行事도 엿보인다.

다음으로 收穫儀禮는 家族祭의인 性格으로 本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六月令(仲夏)의 流頭薦新(家廟薦新), 八月令(仲秋)의 秋夕薦新, 九月令의 花薦新, 十二月令(初冬)의 祭先奉親하는 告祀薦新을 나누어 들 수 있는데 위에서 言及한 占歷 豫祝儀禮와 反復되는 傾向이 있으나 이는 村落의 共同體의인 儀禮이다.

流頭薦新은 成長儀禮로서 時期는 六月十五日이며 이 때는 水稻의 成長期

8) 「有麻布蠶桑作棉 曉候星宿 豫知早歲豐約」(三國誌 歲傳)

9) 「初昏特炬登高謂之迎月 以先見月者爲吉 仍占候月色赤微 旱白徵水 又占月出時形體大小湧浮高低 又以輪廓四方厚薄 占四方年事厚則 徵豐薄則 徵凶 無少差忘」(東國歲時記 上元 迎月條)

10) 「農家以初昏目昴宿 去月遠近以占歲事 故行及差前尺寸以內爲吉 若先後太遼則 謂歲將儉幼 少不見收哺也 驗之頗中」(東國歲時記 二月六日 昴宿占歲條)

11) 「二十日雨占 豐微陰赤吉」(東國歲時記 二月條)

12) 「六月 丙寅 有侍御史二人與官者會于廣貞寺 為流頭飲 國俗 以是月十五日 沐髮於東流水 祓除不祥 因會飲 號流頭飲」(高麗史卷二 明宗 十五年條)

「六月十五日 東俗稱流頭日 按金克己集 東部舊俗 六月望日 洗髮於東流水 祓除不祥 因爲禊飲 謂之流頭宴 國俗因之爲俗節 慶州尙有此風焉」(東國歲時記 六月流頭條)

로서 農神에 對한 流頭祭, 이외에 薦新儀禮로서의 性格을 가진 것으로 高麗以前의 月令歌로서는 「動動」에서 流頭節이 流頭飲의 習俗으로¹²⁾ 엿볼 수 있다. 이것은 一年 農事의 豊年을 爲해서 地方에 따라 밀국수 및 보리밥으로 農神祭(流頭祭)를 지내고 이날의 僻邪行爲로서 침밀의 누룩으로 만든 流頭麵을 하는 風俗을 本歌에서도 볼 수 있다.

「三伏은 俗節이오 流頭는 佳日이라
 園頭맛해 촘외하고 밀가라 국수호야
 家廟에 薦新하고 혼미飲食 즐겨보서
 누룩을 디피여라 流頭麵을 헤누니라.」(農家月令歌 六月令)

이와 같이 流頭의 佳日을 맞아 家廟에 薦新하고 流頭祭를 지내므로 雜鬼를 내쫓고 厄運을 풀어 버린다고 한다. 이것은 곧 畜神=穀神(靈)에 對한 祈穀儀禮¹³⁾로서 年例的인 成長儀禮임을 암시해 주고 이 流頭祭가 薦新祭와 祈豐祭의 複合的 性格이¹⁴⁾ 띈 것으로 본다.

秋夕薦新에는 主로 新穀의 薦新儀禮로서 農耕의 收穫祭儀라기 보다 收穫開始의 薦新祭로¹⁵⁾ 보기도 한다. 그리고 地域에 따라 收穫이 늦어질 때는 秋夕보다 九月九日의 重陽節에 薦新祭로 올린 경우도 있는데 本歌에서는 다음과 같이 花煎薦新¹⁶⁾하는 風俗을 엿볼 수 있다.

「九月九日 가결이라 花煎호여 薦新호세
 결션를 따라가며 追遠報恩 잊지마쇼」(農家月令歌 九月令)

告祀薦新은 主로 十月에 行하는 收穫儀禮로서 穀靈과 祖靈에 對한 信仰儀禮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新穀을 薦進하여 祖靈에게 告祀하는 行爲를 의미한다. 이것은 村落共同의인 祭儀와 個別의인 家祭로 大分되는데 大部分家庭祭로서 發휘되고 비록 家祭라도 家家戶戶가 모두 行祭한다는 뜻에서 農村의 慣習으로서는 重要한 行事라 하겠다.

13) 「麗羅時，國人士女 具酒食 就東流水頭 沐浴宴樂 戒除不祥」(測陽歲時記 六月十五日條)

「六月十五日 沐髮於東流水 戒除不祥因會飲 號流頭飲 或於瀑布散髮承之 以祛風眩 謂之打頭會」(中京志 卷二 風俗條)

14) 金宅圭, op. cit., p. 721

15) Ibid., pp. 727~728

16) 「採黃菊花爲糯米餠與三日 蘭花餠同亦曰 花煎」(東國歲時記 九月九日條)

2. 生業曆의인 生產活動

農家月令歌에 나타난 農家の 가장 분주하고 바쁜 달은 播種, 移秧하는 三月과 秋收期인 十, 十二月로서 그 중에도 三月이 매우 중요한 時期인 것 같다. 本歌의 三月의 農事의 상황을 보면

「寒食날 성묘하니 빅양나무 서님 눈다.

雨露의 感愴함은 酒果로나 펴오리라.

통부의 힘드는일 가리질 첫 저로다.

.....<中 略>.....

물고를 김히치고 드렁발바 물을막고

한편에 모판하고 그남아 살미하니

날마다 두세번식 근거이 살펴보소

약호싹 세워닐제 어린아침 보호호듯

百穀중 는동수가 泛然하고 못흐리라

浦田에 써속이오 山田에 두티로다.

들씨모 일죽붓고 삼룡수도 흐오리라

죠흔씨 갈희여서 그루를 상환호조

보리밭 미야노코 웃눈을 되야두소

들롱수 흐는틈에 치포를 아니흘가

울밋히 호박이요 점아가에 박심으고

담근쳐 동아십어 야자하야 올여보자

무우비초 아옥상치 고초가지 파마늘을

식식이 구별호야 빈싹업시 심어노코

짓버들 빠여다가 키바조 들너막고

계견을 방비흐면 조연이 무성호리

외바춘 짜로호야 거름을 만히호쇼」(農家月令歌 三月令)

하며 그외에도 農家の 할 일은 賽農준비, 果木接하기, 장담기, 향채, 약초캐기 等 이중 어느 한가지도 時期를 놓쳐서는 안될 農村의 生業을 為한 生產活動에 直接的 관련을 갖는다. 이와 같이 三月令이 100句節이며 十月令이 146句節로서 全篇을 通하여 제일 긴편에 속한다. 이것은 一年中 農村의 生產活動과 生計를 為한 重要한 時期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수확을 為한 준비기로서 三月의 播種儀禮가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播種儀禮는 農村의 生業曆의인 生產活動의 첫 시작을 이루어주는 行爲

지만 그 다음의 移行(成長期 과정)을 促進하기 爲해서는 다음과 같은 儀禮를 들 수 있겠다. 즉 寒食節(三月), 花煎놀이(四月), 端午굿(五月), 流頭(六月 農神祭), 뜬굿(七月) 및 祈雨祭 등이다.

이러한 儀禮的인 年中行事는 農家의 生業의in 生產活動과 有機的인 연관을 가지고 接近하므로 다음 단계의 生產과 勞動에 活力이 되어 줄 것이다. 이와 같이 季節에 따라 農村生活의 律動이 形成되어지므로 日, 月, 年의 輪回 속에 內在하는 天體의 法則性은 動植物의 季節의 變移 및 이에 對處하는 人間生活과도 密接하여 生業의 形態, 生產手段의 方法과 生活集團의 性格까지 관현되어 질 것이고 아울러 地域性, 社會性이 다른 儀禮의 行爲가 表出됨으로 새로운 文化의 樣式까지 產生될 것이다. 그럼으로 上代로부터 農業은 중요한 生業曆의in 生產活動이였고 따라서 生產活動의 性格에 따라 儀禮的 行爲가 따르고 이러한 行爲는 生活의 律動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意義가 있다.

이상으로前述한 信仰儀禮의in 年中行事와 生業曆의in 生產活動은 上代로부터 密接한 연관성을 맺고 農耕儀禮의 多樣性을 抽察할 수 있을 것이다. 本歌는 農業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만큼 情感에 관한 것은 한 句節도 볼 수 없고 다만 道德의in 面과 教訓의in 勸農의 性格을 나타낸 歌辭로서 內容의 性格을 각 月令에 따라 다음과 같이 表로 만들어 볼 수 있다.

月 別	信仰儀禮의 인 年中行事			生業曆의 인 生產活動			其 他
	信 仰	歲 時	民 間 娛 樂	生 業	生 計 劃 爲 社 會 生 產 活 動	動 植 物 變 移	
正 月	歲拜, 더위팔기, 가지사이 둘 끼 우기, 보름약밥, 上元날 달보기, 실파나무 베꽃 깎기	立春, 雨水, 上 元날 대보름	花煎一醉 연 퍼우기, 널 뛰기, 웃놀이, 윷불 혀기	農牛, 農器손질, 이영 엮기, 새 끼 퍼기, 麥田 에 오줌 치기	小麴酒, 엄파, 미나리, 산채		祠堂에 歲謁
二 月	ombok이 보기(初 六日), 陰晴 보기(20日)	경첩, 春分		春耕, 봄 보리 심기, 담배모와 잇심기, 거름장 만, 보쟁기장만, 果木, 뽕나무, 藥草 캐기	園林 粧點하기, 달래 김치, 냉 이국, 들나물캐 기	萌動(植物), 옛 비둘기, 개구리	
三 月		清明, 穀雨, 寒 食節		가래질하기, 모 반 만들기, 삼농 사, 山田, 浦田 매기, 果木 손 질하기	장담기, 治圃하 기, 각종 채소 심기, 누에치기	百花爛漫, 쌍제 비, 범나비, 白 楊나무	祖上省墓
四 月	벌래꽃보기(旱)	立春, 小滿, 초 파일 懸燈	川獵하기	면화갈기(길 삼), 이른모내기, 집 손질, 거름하기, 녹두, 참깨 심 기	필무명마전하기, 벌통에 꿀 채집, 느티떡, 콩찌니, 뽕따기, 여름옷 장만	빠죽새, 벌래꽃, 벌갈입, 꾀꼬리	君臣分義

月別	信仰儀禮의 年中行事			生業曆의 生產活動			其 他
	信 仰	歲 時	民 間 娛 樂	生 業	生計를 위한 生產活動	植動物 變移	
五 月	端午祭	芒種, 夏至,	驅驀. 菖蒲 비 녀 꽂기	打麥하기, 農牛 보살피기, 그루 갈이 모심으기, 논갈기(모자리), 모찌기, 모삽기	고치썰기, 장마 나무 준비, 약 쑥 베기, 고추, 가지 심기	앵두, 복숭아, 멘드라미, 명아 리	天의 恩功
六 月	流頭祭 (家廟薦 新)	小暑, 大暑, 三 伏		山田, 浦田 간기, 봄보리 거두기, 밭 베기, 잡곡 거두기	외파기, 장파기, 누역치기, 길쌈, 북은 씀 피우기, 누룩 디디기(流 頭轆)	草木 무성, 파 리, 모기	
七 月		立秋, 處暑, 七 月七夕, 伐草하 기		논두렁 깎기, 김 베기	명주짜기, 무우, 배추 심기, 겨 울 반찬 준비	매미, 베짱이, 오동나무	늙은이 의복 장만
八 月	秋夕祭	白露, 秋分, 秋 夕節		遲麥, 秋耕	밭채, 망구장만	귀뚜라미 소리, 여루, 달래	先山에 祭祀, 친정부로 観親, 父母壽衣장만
九 月	重陽節, 花煎薦 新	寒露, 霜降, 重 陽節		秋收하기, 農牛 보살피기	짚 널기, 뒷목 추기, 목화 쐐 빼기, 겨울 옷 장만	제비, 기러기, 국화	追遠報恩
十月	降神祭	立冬, 小雪	降神놀이	월동 준비(가옥)	김장하기, 월동	고니(白鳥)	三綱五倫강조

月別	信仰儀禮의인 年中行事			生業曆의인 生產活動			其 他
	信 仰	歲 時	民 間 娛 樂	生 業	生計를 위한 生産活動	動植物 變移	
十月				손질, 땔감장만)	준비		
十一月		大雪, 冬至 ^{한국} 牛기		씨앗 간수, 기 작 배기, 두엄 장만	매주 쑤기, 길 쌈하기, 農糧자 축		祭飯米 준비
十二月	除夕날 불꺼기 (臘平日)	小寒, 大寒	臘平日에 평잔 기		歲時 衣服 장만		복은歲拜하기

※ 序令은 天地運行과 二十四節候 및 曆法이 農業에 중요성 설명
 結令은 國家奎用 및 祭先奉親하여 重農思想 강조

四. 詩經, 禮記, 農家月令, 田家月令의 類似性

農業에 對하여 일찌기 實學者 茶山 丁若穠은 「土」와 「農」이 두 간래로 갈라지면서 날이 갈수록 나빠지게 되었는데, 上代의 帝王들이 「農」을 重視하고 勸農하는 이유도 農事는 곧百姓들의 生活을 厚하게 하고 나라의 쓰임새를 넉넉하게 한다는 것이라고¹⁷⁾ 勸農의 중요성을 說明한 바 있다. 그래서 上代에는 「農稷之官」¹⁸⁾이라 하여 農家에서 때 맞추어 百穀을 뿌리고 밭갈고 누에치기를 하여 입고 먹기에 넉넉하게 하도록 훈동하는 等 農事일을 맡아 보는 벼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18C 以後부터는 農業이 국도로 폐폐하여져서 下茶山은 王에게 상소하기를 孟春 때마다 勸農하는 教書를 내리도록 하고 農業을 王政의 첫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嗚乎重本教 抑宋技 卽王政之首務 而豫寡人夙夜 念效者也 孟春之月 每下勸農之教 上辛之日 必稱新年之儀 內苑觀刈 用寓近稼之義 繢繢 盖倣賜租之意 …<略>… 恭惟我殿下 夙夜憂勤 務本重農 政令施措 迓致體祥 周家值豐慶 漢室頌席富之美…」(與猶堂全書 農策條)

라고 하여 農事를 重하게 여기도록 政令을 짜고, 上代의例를 들면서 農은 天下之大本으로서 天時와 地理에다 人和를 기다려야 힘이 온전하게 나서 자라고 성숙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農家月令歌」의 作者 駢達 丁學游는 實學者 茶山의 둘째 아들로서 그는 한평생을 경기도 양주군에서 農事를 짓고 살면서 父親이 저작한 論策과 詩文集 등 많은 저서에 槩划와 영향 받았을 것은 사실이다. 「農家月令歌」의 內容에 直接, 間接으로 영향을 입은 文獻들은 茶山의 著書 외에도 各種 歲時風俗에 관한 것과 農書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歲時風俗에 관한 것으로는 柳得恭(1749 ~ ?)의 京都雜誌, 金邁淳(1776~1840)의 洱陽歲時記 洪錫謨(?)의 東國歲時

17) 「王若曰 筋力以長地財 謂之農 農也者 所以厚民生而 裕國有用者也」(與猶堂全書 農策條)

「矜身穀腹 安土樂業則民生之所以厚者農也 倉輸廢積 蓄散待需 則國用之所以裕者農者」(上同)

18) 「農家者流 蓋出於 農稷之官 播百穀 勸耕桑 以足臨食 故八政 一日食 二日貨…… 孔子曰 所重民食 此其所長也」(漢書藝文志, <農家>條)

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本歌의 영향을 끼친 중요한 農書들로는 金安國의 農書謬解, 朴의 農政新書와 李鮮 初期의 農家集成, 農家要訣과 實學者 朴世堂의 稸經等을 열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農家月令歌는 創作當時의 傳來하는 歲時風俗과 많은 農書를 참고하여 지은 것은 사실이나 本歌 內客의 末尾部分에 보면

『夏小正 幽風詩를 聖인이 지어시니
이 뜻을 본바다셔 대강을 괴록호니
이 글을 조세보아 힘쓰기를 바라노라』

하였으니 이 歌辭의 源泉은 前漢의 戴德이 편찬한 大戴禮의 夏小正과 詩經의 幽風詩, 그리고 禮記月令에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本歌의 傳統의 源泉摸索과 영향받은 範疇의 限界를 為하여 「詩經」의 幽風詩와 「禮記」의 月令編高尚顏의 「農家月令」, 朴世堂의 「田家月令」을 年代順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書誌에 對한 說明을 하고¹⁹⁾ 「農家月令歌」와의 類似句 및 關聯句를 對比시키고자 한다.

詩經은 中國 최초의 詩集이다. 年代를 따지자면 B.C 十世紀 後半으로부터 B.C 六世紀 初에 成立된 詩篇들이라 하겠다. 詩經을 보면 國風의 幽風詩는 周公이 지었다는 七月의 노래가 있는데 이 내용은 農業關係의 詩를 한데 묶은 것으로 민간에서 생긴 月令歌다. 이 노래는 총 八章에 各章 11句로 되었는데 같은 내용의 반복이 많으며當時의 社會構造가 짐작된다.

제一章은 七月, 九月, 11月(一之日), 12月(二之日), 正月(三之日), 2月(四之日), 月令歌 順으로 한 篇의 노래가 되어 있는데 제二章은 七月, 九月 및 春日을, 제三章은 七月, 八月, 春蠻을, 제四章은 四月, 五月, 八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을 順으로 하여 꼭 月順은 쫓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月別敘述을 為主로 하여 맞추어 보면 月令體歌를 이루는 것이다. 幽風의 七月은 田園의 四季節을 묘사한 勞作으로 내용이 質朴하고 生動感이 있는데 全篇을 通해 볼 때 周代의 重農思想을 表現한 詩가 많다 하겠다. 그 외에도 詩經에는 重農精神과 勸農을 為한 詩가 많다.

禮記는 五經의 하나로서 禮의 理論과 實제를 기술한 冊으로 中國 周末부터 奏漢時代의 儒者의 古禮에 관한 說을 수록하였다. 後漢 때 戴德이가 정

19) 「農家月令歌」의 末尾에 나오는 大戴禮의 <夏小正>은 戴德이가 奏漢代에 걸쳐 孔子의 72제자들의 禮說을 엮은 것으로, 그 후 戴聖이가 214편을 49편으로 <小戴禮>를 만들고 그 후 다시 줄여서 禮記가 되었다고 한다.

리하여 85편으로 大戴禮를 만들었고 다시 小戴禮를 만들고, 다시 출인 것이 오늘날 傳하는 禮記가 되었는데 우리 나라에는 高麗 때 周禮, 儀禮와 함께 安珦이가 들여 왔던 것이다.

禮記 卷六에 月令篇이 있는데 그 내용은 一年12個月의 각 季節에 따라 飲食과 居處와 行事, 政事, 狩獵을 提請한 글이다. 특히 農業에 對하여 時候에 따라 儀式이나 農事行事를 月別로 區別하여 기록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高麗 때부터 禮記의 月令故事 그대로 模倣되어 오고 또한 禮記 月令篇대로 遵守할 것을 提請하는 글이 高麗史의 여러 곳에서 나타났음을 前篇의 引用例에서 볼 수 있다. 高麗 때의 年中行事는 거의 禮記 月令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高麗人们은 禮記 月令을 自己들의 歲時風俗과 함께 年中行事의 標本으로 李朝에 까지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⁰⁾

農家月令은 李朝 光海君 때 泰村 高尚顏(1553 AD~1623AD) 作으로 12月令을 24節候로 나누어서 이 작품은 農家の 當務를 자세히 설명한 農事教本²¹⁾으로 末尾에는 雜令을 붙여 놓았다. 그리고 이 작품은 作者가 晚年에 田園에서 優遊하며 勸農에 힘을 기울이던 결과 農家月令이 제작되었다고 본다.

내용은 主로 五穀播種, 糞田之策, 種植之法, 治田之械, 養蠶之要 等을 열거하고 尚農의 思想과 勸農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本書를 愚夫愚婦에게도 알기 쉽도록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²²⁾을 볼 때 作者는 이미 茶山에 앉아서 勸農政策에 注力한面을 볼 수 있다. 특히 李朝初期에는 우리의 獨自의 農事教本이 없어 李行동에 의하여 元의 農桑輯要를 俚語로 翻譯하여 刊行되었고²³⁾ 그 후 世宗代에 農事直說을 편찬하고 中宗代에 와서 農事諺解, 蠶書諺解 等의 諺解類 農書가 刊行되었는 실정이다. 이로써 볼 때 17C 초 光海朝에 나온 「農家月令」은 作者가 직접 一地域을 설정하여 實驗 結果에 依해서 農事法을 記述하였으니 우리나라 農事技術史上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이라 할 것이다. 「農家月令」이 尚州地方을 中心한 一地域의 營農 指針書로 보아 穀種播種의 時期 等 연중행사는 憲宗 때 나온

20) 李朝 王朝實錄의 곳곳에 「月令監察」「月令薦新」하는 記錄을 볼 때 이 모두 「禮記」月令篇에 근거를 두어 그대로 高麗時代와 같이 그대로 쓰았다고 본다.

21) 洪在杰, op. cit., pp. 385~386

22) 「己未府君六十七歲……又著農家月令一篇; 翻以諺譯 使愚夫愚婦亦得易知」(泰村集 卷六 行年記)

23) 「啓曰 元朝 農桑輯要 有益於民 但其文雅 人人未通曉 願譯以東國俚語 令鄉曲小民 無不知之上 從之 命前大提學 李行 與檢詳官郭存中 成書板行」(太宗實錄 卷二十八 十四年 十二月 乙亥條)

耘逋의 「農家月令歌」에 영향을 주어서 歌辭創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田蒙月令은 숙종 朝에 실학자인 西溪 朴世堂(1629~1703)이 지은 것으로 그의著書인 稿經 下卷에 傳해오는 산문체의 農書로서 農家月令 다음으로 나온 個人作의 農事에 관한 理論書이다. 특히 稿經은 2권 2冊으로 全篇이 果樹, 園藝, 水利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술한 農書로서 農事教本書이다. 그 외에도 辨土, 耕地, 播種, 水稻, 養蠶經, 鳥獸類와 田家月令이 실려 있어 農業全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田家月令은 農家月令과 함께 農家月令家의 內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以上으로 「詩經」, 「禮記」, 「農家月令」, 「田家月令」順으로 살펴 본 것은 모두 農事에 관한 內容과 年中行事를 月令歌 혹은 月令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耘逋의 「農歌月令歌」의 淵源은 어디까지나 詩經의 閼風詩와 禮記 月令인 데 李朝에 와서 農家에서 歲時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적은 高尚顏의 「農家月令」이나 朴世堂의 「田家月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다음의 別表와 같이 「農家月令歌」를 기준하여 結構 및 內容面에서 類似한 表現과 句節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곧前述한 4가지의 作品 및 저서를 土臺로 하여 作家의 주변환경 및 經驗이 添加되어 創作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농가월령가」의 歌辭가 創作되기까지 傳授과정을 摸索하기 위하여 「詩經」의 閼風章과 「禮記」의 月令 「農家月令」, 「田家月令」, 「農家月令歌」順으로 類似句 및 關聯句를 對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²⁴⁾

이상과 같이 「農家月令歌」는 全篇의 主要部. 이 그 表現에 있어서 「詩經」「禮記」「農家月令」「田家月令」과의 類似함으로 보아 前期의 作品 및 著書들이 後期의 「農家月令歌」에 끼친 影響이 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作品간의 主題가 또한 歲時風俗에 따라 節候를 中心하여 農村의 年中行事와 勸農思想을 教訓的, 指示的이며 啓蒙的인 內容으로 舊은 月令體 장편 歌辭이다.

24) 「詩經」 閼風은 李元燮譯解(서울, 玄岩社, 1975), pp.197~210을 參照하였고, 「禮記」月令은 禮記大文譯讀(奎章閣, 1239, 卷二·二十二)를 參照하였고, 「農家月令」은 洪在熙 档註(嶺南大, 東洋文化研究所所刊, 東洋文化 Vol. 6, 7), pp. 397~407을 參照하였고, 「田家月令」은 秘閣本 소장된 稿經 下卷(奎章閣, 乾坤二冊)을 參照하였고, 「農家月令歌」는 明知大學內 한글전통文化研究所에서 刊行된 영인본(李鐸님 소장본과 성재친필본 1970. 12)을 參照하였다.

月別	詩 經	禮 記	農 家 月 令	田 家 月 令	農 家 月 令 歌
正 月	三之日于耜	孟春之月 東風解凍 豁蟲始振 草木萌動 王命布農事	正月節 立春 編茨索陶幽其乘屋 備農器	◦冀田織蠶箔造乘机 ◦修農具整屋漏	◦농기를 다스리고 농우를 살피며 여여 재거름 재워 놓고 일변으로 실어 내어 매전에 오줌치기 세전보다 힘써 하라.
二 月	四之日舉趾	仲春之月 耕者少舍 乃修閭扉	二月節 驚蟄 節內盡播春麰麥 植果木雜木 付南草種 春耕前埋炭	◦仲春始雨水桃始華倉庚鳴玄鳥至雷乃發聲 ◦蟄虫咸動日夜分 ◦諸果枝插葵頭 ◦種椒種西來茄子及諸瓜瓠 ◦接諸果木種栗種銀杏	◦살진 밭 가리어서 舂牟를 많이 갈고 ◦담배모아 잎 심으기 이를 수록 좋으니라 ◦一分은 果木이오 二分은 뽕나무라. ◦보장기 차려 놓고 春耕을 하오리라.
三 月	春日載陽 有鳴倉庚 女執懿筐 遵彼微行 爰求柔桑	季春之月 生氣方盛 陽氣發泄 命野虞 母伐桑柘	三月節 清明 安置蠶種於溫處 耘麰麥田 三月中 穀雨 節初 即付木綿種 造蠶箔	◦耕秧田入草下子早稻 ◦清明節前浸種晚稻穀 ◦雨後浸種 ◦接梅櫻杏桃	◦浦田에黍粟이요 山田에豆太로다. ◦蠶室을 쇄소하고 諸具를 준비하니 ◦과목을 접하나니 단행, 이행 올통도며 문배, 침배 농금사파 엇접, 피접 도마접에

月別	詩 經	禮 記	農 家 月 令	田 家 月 令	農 家 月 令 歌
四 月	蠶月條桑 取彼斧斫 以伐遠楊 椅彼女桑	孟夏之月 蠶事畢 后妃獻繭	四月節 立夏 於是節也 蠶既蕃息 則 摘取桑葉 不避雨露 因 以伺蠶 蠶性惡濕 瘴疾 之所由生也 植早秧	孟夏蠶鳴蚯蚓出王 瓜生苦菜秀盛德在火 農乃登麥灘草死麥秋 至蠶事畢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도 한창이오 농부도 方長이라 무논을 써울이고 이른모 내어보세 한참자고 이는 누에 하루도 열두밤을 밤낮 쉬지 말고 부지런히 먹이리다.
五 月	五月鳴蜩 五月斯螽動服	仲夏之月 小暑至螳螂生 鶲始鳴 反舌無聲	五月節 芒種 修打稻梗 五月中 夏至 急收糙麥 植晚秧	仲夏小暑至螳螂 芒種前後掉稻秧 牧紅花壅稻田以青草 踏於泥內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풍은 때 맞추어 麥秋를 재촉하니 도리깨 마주 서서 짓내어 두드리니 뒷 논은 뉘 심으고 앞 논은 뉘가 잘고 모찌기는 자네 하고.
六 月	六月莎雞振羽 六月食鬱及薁	季夏之月 農乃登黍 天子乃以離 嘗黍 羞以含桃 先薦寢廟	六月節 小暑 分耕凍壅落種 以覆蔽 栗根 雨後刈山麻 六月中 大暑 收早黍早栗	耕麥地宜初旬種以菜 豆七月間整鋤翻 收菜割麻稻耘種菜豆 晒小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밭을 갈마들여 삼사차 둘려밸개 그 중에 면화밭은 人工이 더 드나니 진터 올밀 돌아가며 잡풀을 없게 하소 날새면 호미 들고 삼대를 베어 끓이 익게 쐐 먹기리다.

月別	詩 經	禮 記	農 家 月 令	田 家 月 令	農 家 月 令 歌
七 月 月	七月在野 七月亨葵及菽 七月食瓜	孟秋之月 農乃登穀 子天嘗新 先薦寢廟	七月節 立秋 播蘿蓄於麻田 七月中 處暑 刈雜草及柳條 細折入既 耘木花田	◦孟秋涼風至白露降寒 蟬鳴 ◦割藍種蕎麥宜立秋前 後稠密撒子 ◦浣古衣製新衣作夾衣 以被始涼	◦거름풀 많이 빠여 더미 지어 모아 놓고 ◦면화밭 자로 살펴 올다래 피었는가 가꾸기도 하려니와 거두기도 달렸느라 ◦추량(秋涼)이 가까우니 의복을 유의하소
八 月 月	八月在宇 八月剥棗 八月斷壺	仲秋之月 可以築城郭 建都邑 易關市 来商旅 納貸賄 以使民事 四方來集	八月 秋分 播秋難麥 收次稻	◦移植牡丹芍藥早梅及 諸花果 ◦開密收油麻收祿 下旬造油衣修冬衣	◦참깨, 들깨 거둔 후에 증오려 타작하고 ◦밀대 베어 더운갈이 모매을 추경하세 끌끌이 못 익어도 급한대로 건고 가소
九 月 月	九月在戶 九月叔苴 采荼薪樗 食我農夫 九月築場圃 九月肅霜	仲秋之月 霜始降 則百工休 草木黃落 乃伐薪爲炭	九月節 寒露 九月中 霜降 水萑穆纔有黑處 即刈 取實 收晚穀	◦秀秋鴻雁來賓崔入大 水爲蛤菊月有黃花豺 乃祭獸霜始降 ◦五穀收種棟好穗刈之 晒乾 ◦貯麻子油採菊花	◦재비는 돌아 가고 폐기러기 언제 왔노 ◦들에는 조 피더미 접 근처 콩팥 가리 벼 타작 마친 후에 틈나거든 두드리세 ◦매눈 콩 황부대를 이삭으로 먼저 짚라 후씨로 따로 두소

月別	詩 經	禮 記	農 家 月 令	田 家 月 令	農 家 月 令 歌
十 月 月	十月蟋蟀 入我牀下 穹窒熏鼠 寒向董戶 嗟我婦子 日爲改歲 入此室處 十月納禾稼 十月瀝場	孟冬之月 水始冰 地始凍 天子乃命將帥 講武習射御	十月節 立冬 秋收既畢 先築主室次補園籬 修補窓戶及破壁 十月中 小雪 以打稻梗打稻藁收餘穀 積柴以備雨雪	◦壅芋麻用牛馬糞及糠粃之類 ◦築墻垣墐北戶縛薦	◦듣거라 아이들아 농공을 필하도마. 남은 일 생각하여 집안 일 마저하세요 ◦방고래 구두질파 바람벽 배질하기 창호도 빨라 놓고 쥐 구멍도 막으리라 ◦깍지동 끓어 세고 파동시 쌓아 두소
十一 月	一之日觱 命有司曰 土事母作 慎母發蓋 母發室屋 及起大衆 以固而閉	仲冬之月 命有司曰 土事母作 慎母發蓋 母發室屋 及起大衆 以固而閉	十一月中 冬至 令人土室作網席	◦猛仲冬冰益壯地始壯 ◦修薪柴綿絮造什物農具	◦늙은이 일 없으니 기직이나 배어 보소 ◦바람불고, 서리치고 눈 오고 얼음 었다.
十二 月	二之日栗烈 二之日鑿冰冲冲 三之日納于凌陰	季冬之月 冰方盛 水澤腹堅 命取冰 冰以入	十二月節 小寒 十二月中 大寒	◦猛季冬雁北向鵠始巢 ◦糞地刈棘造農器收牛糞	◦외양간 살펴 보아 여물을 가끔 주고 깃 주여 받은 두엄자로 쳐야 모이나니

五. 前期歌辭의 關係와 製作動因

(1) 前期歌辭와 關係

朝鮮前期(14~16C) 歌辭는 대부분 兩班作家들이 現實을 도피하여 山水를 찾아가 自然을 즐기며 隱逸生活을 營爲하기 땐에 四時變化에 따라 自然의 경치를 읊은 隱逸歌辭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隱逸歌辭의 作者들은 거의 官界를 떠나 自然에 安住하면서 老後生涯를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나 간혹 官海風波에 시달려 世俗의 富貴와 功名을 떨쳐 버리고 江湖의 隱逸君子로서 生活하는 가운데 創作된 歌辭가 여기에 속하는데 歌辭의 嘴矢라 하는 「賞春曲」을 비롯하여 「樂志歌」, 「俛窺亭歌」, 「退溪歌」等을 들 수 있으며 17C 以後에도 이런 類의 歌辭는 많이 나왔다.²⁵⁾

이들 隱逸歌辭의 共通의 性格은 江湖에서 隱逸하는 現實逃避性이 있으며 그리고 生活背景인 自然의 描寫가 全篇에 흐르고 있어 叙景時의 感興을 일으키게 한다. 다시 말해서 自然에 문혀 安貧樂道하려는 姿勢를 지닌다고 하겠다.

農家月令歌의 創作年代는 19C 初이지만 作者인 耘逋 丁學游 역시 平生으로 官界에 나가지 않은채 世俗의 功名을 떨쳐버리고 경기도 양주군에서 自然을 벗하며 農村에서 農業에 全念한 선비이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15C의 前期가사와 19C 初의 後期歌辭, 「農家月令歌」와의 通時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歌辭의 嘴矢인 賞春曲과 俛仰亭歌와 관련지위 歌辭의 구성面을 살피고 後期歌辭의 속하는 農家月令歌의 位置를 밝히고자 한다.

賞春曲은 成宗 때(1470) 不憂軒 丁克仁이 지은 것으로 그는 睿宗元年(1469) 八月에 正言에任命되었으나 70歳의 高齡을 理由로 辭退하고 還家하여 春景을 玩賞하면서 安貧樂道하는 風流生活을 읊은 총39行의 79句의 서정가사이다. 歌辭의 構成은 起承轉結의 四段構成으로 序詞 春興 酔樂 結詞인데 全篇의 흐름으로 보아 作者는 儒者의 隱逸的 態度를 固守한 것으로 表現은 寫實의이라 할 수 있다. 賞春曲에서 선조朝의 松江歌辭까지 다리를 놓은 가사는 宋純(1493~1582)의 俛仰亭歌를 들 수 있다.

俛仰亭歌는 73行 145句로써 中宗28年(1533)에 歸鄉하여 俛仰亭을 짓고 優

25) 여기서 前期歌辭라고 한 것은 李朝時代에 해당하는 14~16C 사이 즉 임진란以前의 初期가사를 말하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主로 隱逸歌辭에 속하는 賞春曲 俛仰亭歌를 자료로 삼았다. 그의 樂志歌, 退溪歌와 松江의 作品을 들 수 있다.

游自適하면 5, 6年동안 世俗을 잊어버리고 오직 自然에 没入한체 隱逸生活을 즐기면서 이 때 本歌와 長短歌를 創作하였다.

그래서 倦仰亭歌도 丁克仁이 지은 〈賞春曲〉의 系統을 이은 作品으로 自然 속에서 江湖閑情을 나타낸 隱逸作品이다. 이 歌辭의 內容도 倦仰亭 주변의 경치 四時에 따라 變하는 자연경관 閑居醉樂과 活蕩自樂하면서 戀主之情을 읊고 3단락으로 구분하여 自然 속의 風流生活을 表現하고 있다. 宋純의 作品은 歌1편 時調 20수와 傳하지 않는 農歌① 수로써 많은 國文詩歌도 지었다.²⁶⁾

丁克仁의 賞春曲과 宋純의 倦仰亭歌를 놓고 볼 때 歌辭의 내용 주제나 구성 표현 유사성을 發見할 수 있다.

賞春曲이나 倦仰亭歌에 表現된 自然은 하나의 풍류의 對象이 아니고 李朝兩班社會의 典型적인 선비로써 道德을 바탕으로 절잖하게 自然을 본 것이다. 좀 더 자연의 美를 玩賞하며 풍류를 즐긴편은 오히려 「丁克仁」이라 한다면 「宋純」은 이보다 풍격을 높여서 自然의 魂와 聲에自我를 밀착시켜 이른바 仙景의 超自然的 경지를 지니고 있어 自然에 對한 表現이 道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멋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李朝初期의 兩班作家들의 共通點은 모두 道를 根本으로 하는 兩班意識을 作品 속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²⁷⁾

그리고 「丁克仁」이나 「宋純」의 作品 全體 흐름이 自然에 對한 風流를 즐기고 隱逸的 態度를 固守하지만 항상 戀君에 對한 情을 잊지 못하고 나아가서 國家를 의식하고 집안에서는 祭先奉親하며 평민에게는 교훈적인 관념에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곧 宋純이 지은 農歌 1首도 丁學游가 지은 「農家月令歌」와 같은 類로서 평민들에게는 教訓的, 指示的인 勸農을 주제로 하였을 것이다. 丁學游는 역시 이조 후기 실학자 丁茶山의 둘째 아들로써 兩班意識은 저버리지 않았음을 歌辭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한 例로서 각 歌辭의 한 두곳에 나타난다. 먼저 賞春曲을 보면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 杏花는 夕陽裏에 뛰여 있고
綠楊芳草는 細雨中에 끄르도다

26) 倦仰亭의 作品 가운데 農歌1首는 그의 “家狀”에서 밝혀진 것으로 아직 原詞는 傳하지 않는 것 같다.

27) 李相寶著, 「韓國歌辭文學의 研究」(서울, 협설출판사, 1974), pp. 99~117

紫扉에 거려보고 亭子에 암자보니
 逍遙 吟詠 之야 山日이 寂寂호덕
 閑中 賞味를 알니 업시 호재로라.」

(賞春曲의 春興)

「藍輿를 빙야 듣고 솔아리 구본길노
 오며 가며 흐는적의 緑楊의 우는 黃鸝
 嫣態 겨워 흐는피야.」

(俛仰亭歌의 春景)

「春日이 載陽하여 萬物이 和暢하니
 百花는 燦漫하고 紗紗各色이라.
 堂前의 쌍계비는 옛집을 ռ즈오고
 花間의 범나비는 絲絲이 날고 머니
 微物도 得時하니 白樂宮이 사랑흘다.
 한식날 성묘하니 梵音나무 신념는다.」

(農民月令歌의 三月令)

이와 같이 三편의 “春”에 대한 경치와 自然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음을 볼 때 한결같이 “春”을 玩賞하며 作者自身들의 與趣가 젖어 들어간 情況을 살릴 수 있다. 다만 農家月令歌는 계속된 자연의 경치를 表現하지 않고 곧 이어 歲時에 따른 儀禮的 年中行事를 소개하고 農民의 農事일 가운데 그달의 할 일을 빠트리지 말고 힘써 할 것을 지시하며 권하고 있다.

다음으로 「면양정가」와 「농가월령가」의 내용에서 王에 대한 忠情을 나타내는 部分을 인용해 보면

「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
 岳陽樓上의 李太白이 사라 오다
 活蕩情懷야 이어서 더 훌스나
 이몸이 이령굽도 亦君恩이 샀다.」

(면양정가의 結詞)

「어와! 우리 聖上 愛民重農 乎오시니
 懇惻하신 勸農綸音 坊曲에 頒布하니

슬푸다 우리 봉부더라 아무리 무지 훈더도

네 몸 利害姑捨하고 聖意를 어궐초나

山田水畜 相半하야 힘더로 허오리라

一年 農凶은 측양치 허야도

人力이 극진하면 天災를 免하나니

져자자 勸勉하여 계을니 구지마라.」

(농가월령가 正月令)

「어와 오늘노름 이노름이 뉘 德인고

天恩도 그지업고 國恩도 閎極하다.

다행이 豊年만나 餓寒을 免하도다.

.....<中 略>.....

내도리 극진하면 罪責을 아니보리

님군에 백성되아 恩德으로 사라가니

겸의가른 우리백성 무어스로 갑하볼가.」

(농가월령가 十月令)

라고 하여 항상 신하와 백성된 도리로 「恩君忠情」의 精神을 잊지 않고 노래하고 있으면서 「農民月令歌」에서는平民에게 勸農의이면서도 이 모두 君主의 勸農綸音의 뜻을 일깨워 주고 聖意를 강조하고 나아가서 豊年을 맞이하고 餓寒을 免하게 하는 것도 天恩과 國恩의 德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聖恩으로 생각하는 것은 순수한 이조 士大夫의 典形的인 兩班意識에서 發露된 정통성의 思考로써 어디까지나 君主에 대한 忠情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로는 백성으로서 임금에 대한 恩德를 생각하고 신하로서 思君忠情 내지는 심지어 戀主之情을 表할 정도이며, 한편 兩班의 위치에서는平民에게 임금의 恩德를 생각해 하여 부지런히 農事에 全念하도록 하고 때맞추어 農家の 年中行事를 失時하지 않게 교훈적이며 지시적으로 勸農하는一面이 全體의 主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다시 五倫勸勵의 뜻이 表現된 곳을 보면

「鄉約은 못하여도 洞憲이야 업슬소나

孝悌忠信 大綱알아 道理를 일치마소

사람에 조식되야 부모온혜 도를소나

조식을 길너보면 그제야 캬다르리

.....<中 略>.....

드려온 지어미는 남편의 겨동보아

그대로 본을뜨니 보는데 조심하소
 형례는 혼미운이 두 봄에 난화시니
 귀중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다음이라.」

(農家月令歌 十月令)

고 하여 부모은혜, 부모봉양, 형제우애 등 五倫을 강조하며 人間으로써의 도리를 잊지 말도록 하고 특히 年晚한 부모에게는 의복, 음식, 잠자리를 각별히 살피고 寿衣까지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언제나 공손히 하여 집안의 和氣를 풀어내도록 하고, 남여노소의 분별을 지키어 늙은이를 공경하고人事를 잊지 않도록 하여 上下前義와 身分의 差異를 강조하였다.

「별통에 삿기나니 서통에 바드리다.

千萬이一心호야 蜂王을 웅위하니
 꿀 먹기도 허려니와 君臣分義 깨끗도다.

(農家月令歌 四月令)

「내 늘그니 공경 훌제 남에 어둔 다를소냐

말삼은 조심호야 人事를 일치마조
 흥물며 上下分義 尊卑가 懸隔하다.」

(農家月令歌 十月令)

하였다. 이것은 곧 王과 臣下 兩班과 平民의 上下身分은 區別자우는 句節로써 兩班의 입장에서 사회의 계층 밝히고 있으며 특히 農事짓는 百姓도 十一月 추수 후에는 제일 먼저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며 百姓으로써의 국가에 복용하고 다음으로 제선 봉친하도록 하였다.

「가을에 거둔 곡식 언마나 흐여던고
 옛섬은 遷子하고 옛섬은 當세하고
 언마는 祭飯米오 언마는 씨아시며
 賦地도 되아나고 품갑도 갑호리다.」

(農家月令歌 十一月令)

하였고 結命에서도

「어와 내 말 듯소 農業이 엊더 흐고
 終年勸苦 혼다하나 그중에 락이잇네
 우흐로 國家奉用 私系로 祭先奉親

형례쳐조 婚喪大事 먹고 입고 쓰는거시
土地所出 아니려면 돈지당을 뉘가 훌고
네로부터 니른 말이 農業이 根本이라.

……<中 略>……

천만가지 성자말고 농업을 專心하소.」

(農家月令歌 結令)

하여 農業이 天下之大本임을 강조하였다. 모든 백성은 農業에 專心하도록 권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장황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근본적인 입장은 兩班임을 의식하고 양반의 입장에서 농사를 권장하고 나아가서 교훈적인 내용으로 三綱五倫으로 강조하여 人倫行實을 바르게 하도록 지시적인 강조를 하였다. 이것은 兩班社會에서는 하나의 상식이었으며 공통적인 속성이였다고 본다. 농가월령가에 나타난 歲時風俗 自然의 景物 묘사 및 自然의 性情을 기록한 것과 가사의 구조 및 형식상 교훈적인 人倫行實을 강조한 것도 倦仰亭의 五倫歌이외 이조 양반들이 지은 道德歌나 五倫歌에 영향을 입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상 月令을 나누어 창작된 농가월령가는 장편 연장체 가사로써 通時的으로 前期兩班歌辭의 영향을 입었지만 共時的으로는 이조 후기에 農家月令歌가 內房歌辭에까지 내용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그러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內房歌辭 文體가 한글체이며 내용 역시 人倫行實, 文物, 制度, 人心, 풍속, 자연의 性情을 기록한 것으로 교훈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內房歌辭의 作者가 대부분 兩班婦女子를로서 生活주변에서 얻었는 것은, 엄격한 儒教의 人倫理觀에 입각하여 生活하여 왔기 때문에 그들의 作品에 나타난 主題와 素材는 自然의 인 것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文物制度와 自然에 대한 觀照의 세계로 表現하였다.

(2) 農家月令歌의 製作動因

「농가월령가」의 내용은 한마디로 나라의 근본인 農業에 대하여 1年 12달時候에 따라 勸農思想으로 一貫하여 왔는데, 여기서는 19C 初에 와서 왜 農家을 主題로 하여 국문체의 연장체 가사가 나오게 한 원인은 어디 있었는지 그 영향과 발전을 살피고자 한다.

耘述 丁學游는 이조 후기 實學者 茶山 丁若鏞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字는 碩求로써(1786年 7月~1855年 2月) 祖父는 縣監, 曾祖父는 判府

사를 지냈으며, 父親인 茶山은 李朝後期의 經世致用의 巨星이고 실사구시의 大學者임은 一般이 主知하는 사실이며²⁸⁾ 茶山은 양반관료의 명문에서 태어난 文人으로써 詩作을 通하여 사회 비평 정신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茶山의 詩作品을 通하여 18C 商業, 手工業의in 經濟위주의 사회를 맞아 그 당시 사회의 모순과 탐관오리를 폭로하고 비판하고 혁신책을 經綸한 愛民, 愛族의 뜻을 보인 寫實主義作家라 하겠다. 그야말로 當世의 正邪美醜의 모습을 그대로 날날이 그렸고 그 시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先覺者的인 眞價는 그의 詩作品(총 2,466數)에서 文學家의一面을 보여 주었다. 그의 「五學論」의 文章論에서 文體의 变용을 주장하였는데

「韓愈 柳宗元 雖稱中興之祖 而本之則亡 如之何…… 文章不自內發 過皆外襲以自雄… 韓柳歐蘇其所 謂序記諸文 率皆華而號實 奇而不正 幼而讀之 非不欣然善矣。內之不 何以修身而事親，外之不可以致君而牧民」(방점은 筆者)

이라하여 中國의 韓愈 柳宗元은 비록 文章을 中興시킨始祖이나 사실인즉 속에서 울어나는 文章이 아니고 겉으로부터 꾸민 文章으로 當代의 大家라고 자처한다. 韓愈 柳宗元 歐陽修 蘇軾이 지은 宇나 記는 화려한 것 같지만 내용이 없어서 바르지 않으니 어린 사람이 읽어서 기쁘게 하여 주나 그것은 안으로 修身하여 事親하고 밖으로는 임금을 섬기고 牧民하는데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眞實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文章, 읽어서 독자로 하여금 마음이 醇化될 수 있는 文章이 참다운 文章이며 형식적이고 套式的인 文章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귀양살이에서 지은 그의 詩는 대체로 農村, 農民, 農家, 漁村, 漁民 등 일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民衆을 위한 詩作品을 남겼다. 1800年 茶山에게 特寵을 내리시든 好文學士의 君主 正祖가 승하한 후 茶山은 노론에 밀려 長鬢等地로 유배되면서부터 一表(經世遺表), 二書(牧民心書, 欽欽新書)를 비롯하여 많은 저서도 남겼는데 그 중 農歌二首가 傳하는 그것은 곧 長鬢農歌 十章와 耽津農歌 十首로서 당시 農村의 生活모습을 자세히 그렸다.

이와같이 人品과 學識이 뛰어나고, 그리고 文學家인 茶山을 父로 모시고

28) 茶山 丁若鏞은 1762년(영조 38年)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에서 태어나 6才부터 晉州牧使로 지낸 父 丁載遠을 따라 다니며 글을 익혔고 남인파 領袖인 蔡濟恭이 執勢하여 영의정에 오른 후부터 부친의 官運이 좋아졌다. 따라서 二十三歲에 初試에, 會試에 生員으로, 庭試·別試를 거쳐 二十九歲에 藝文館 檢閱을 맡은 후부터, 兵曹參知, 左右副承旨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正祖 때부터 유배되기 시작하여 西學에 힘을 기울이고 수많은 저서를 냈다.

있는 丁學游 역시 茶山의 著述한 총五〇九卷(輿猶堂全書 154권 76冊 포함)의 書冊 영향이 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農家月令歌」가 제작된 동기의 첫째는 父親으로 부터의 經世澤民 實事求是의 學風의 강화와 農漁民의 일하는 사람을 주제로 하여 많이 창작된 長形敘事詩農歌作品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은 무시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父親의 學風이 根幹이 되었을 뿐 아니라 傳統的 文學 장르인 前期 歌辭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아울러 18C 社會의 추세에 의하여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百姓들이 누구나 이해하면서 읽혀지도록 국문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당시 평민들 계층은 원래부터 어려운 한문은 배울 수가 없었고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져 내려오는 「詩經」, 「禮記」는 제하고라도 高尚頗의 「農家月令」, 朴世堂의 「田家月令」 등은 農事에 관한 專門的 인 農事教本으로 유용한 가치는 있다 하겠으나 平民들에게 無用之物이 되고 말았으므로 국문 제작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당시 18C 後半의 社會을 보면 상업, 手工業, 高利代金業 等이 활발해짐에 따라 賤富대두가 현저해지는 한편 農業은 천시되어 가며 물가는 높아져 가고 있다.²⁹⁾ 그러므로 정치 권력에서 멀어진 양반계급 또한 물력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茶山도 또한 당시 사회가 상업주의로 전환됨으로 農業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今欲上農 抑末而農自尊矣 先王之制 比閭族黨 受田力農」(應旨論 農政疏)

이라 하여 商業이 農事보다 점점 성해지기 때문에 商利를 억제해야 한다고 하고 당시 商利에 밝아 黃金을 허가없이 채광하므로 이것을 금지시키고 店軍를各自의 農事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임금에게疏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어서 또 말하기를

「今山郡農家 日給傭百錢 無以雇人 以全店也 豊年 穀價之賤 魚鹽百物 乃騰 以金店也 山村盜賊竊發 富民子爲薦業 以金店也」(上同)

이라 하여 黃金 채광과 동시에 매매가 盛하기에 農事지을 품삯꾼이 귀하고

29) 政治權力에서 멀어진 兩班들은 경제생활을 위하여 다만 因習의 허식에 배달려 물탁해가는 士族들을 날카롭게 讽刺하는 당시 文學으로 대표적인 것은 18C 후반에 나온 <兩班傳> <虎叱> <許生傳> 等 朴趾源(1737~1805)의 作品을 들 수 있겠다.

곡식과 함께 물건 값이 치솟는 것도 山村의 도둑이 성하고 부잣집 자제가 莊業을 탕진하는 것이 모두 金店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라의 근본인 世事 를 높여 방안을 널리 강구하여 상소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곧 나라 안의 各守令들이 지켜야 할 큰 綱領이 六조목³⁰⁾이 있는데 첫 강령이 農業인데도 사회경제는 商業으로 전환됨에 農事짓기가 어렵게 되므로 農業을 높이자는 의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茶山은 특히 牧民官은 農事를 百姓들에게 勸獎하는 일이 명성과 治績을 삼는 일이므로 農事를 제 때에 일찍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每春分之日 下帖子諸鄉 約以農事早晚 考校賞罰」(牧民心書 勸農條)

이라 하여 매년 춘분날에는 鄉村에 통첩을 내려 農事를 失時하지 않도록 제 때를 알으켜 주어서 고사에 따라 賞罰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법으로 만들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힘써 지을 것인즉 모든 농사는 일찍 짓는 것이 좋다는 뜻을 말한다.

이와 같이 茶山은 農業에 對하여 깊은 관심을 表示하고 王에게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父親의 이러한 관심에 자식된 耘逋 丁學游는 이에 감화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時期的으로 18C 後半 農業이 점차 畏解되고 百姓들의 知無로 農事 짓는 때를 몰라 失時하므로, 자연百姓 모두 누구나 읽어서 제 때에 맞추어 農事를 지을 수 있고 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체로 쓰여졌다고 본다. 이미前述한 바와 같이 「農家月令歌」의 根本目的은 나라의 根本인 農事일을 부지런히 하여 국가의 재력을 넉넉하게 하므로서 國泰民安하고 아울러 國家奉用과 祭先奉親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다. 「農家月令歌」는 農事만 짓는 일을 말한 것이 아니다. 內容에 따라 婦女子가 해야 할 家事에 對해서도 많은 부분에 소개하였으며 또 人倫行實이나 父母奉養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教訓의인 面과 制度 人心, 風俗 等을 묘사하고 있어 이 時期에 前後하여 나타난 內房歌辭에 까지 영향이 傳授되었다고 생각한다.

30) 「臣竊伏念 守令之職 無所不責 難以悉舉 而其大 綱有之 六綱之中 其目亦各有四 何謂六綱 一曰農 二曰貨 三曰教 四曰刑 五曰兵 六曰工 何謂四目 農之目 一曰耕織 二曰畜牧 三曰種植 四曰提墾 貨之目 一曰賦稅」(考績議)

六. 結

지금까지 「農家月令歌」에 對한 「月令」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였으며 內容分析과 前代詩歌 및 著書를 中心하여 그 영향과 제작된 동기 및 傳授과정을 살펴 보았는바 여기에 그 結論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月令」은 「禮記」月令篇에서 나온 것으로 1年 12月의 時候에 따라 펴는 政令 時令으로서 「集韻」에서 말한 바와 같이 “律也”, “法也”的 뜻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農家의 行事, 儀禮, 政事 등을 每月 구별하여 기록한 습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農家月令歌」는 달(月)을 材料로 삼기에 月令體歌니, 달거리니 구별하기 보다 외형상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2. 「農家月令歌」의 內容을 信仰儀禮的인 年中行事와 生業曆的인 生產活動으로 크게 나누어 보았다. 本家에 나타나는 歲時風俗은 우리 나라의 예전부터 내려오는 節候에 따른 儀禮로서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時期에 따른 占歲的 年中行事는 農業의 生產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民俗上의 遺俗으로 現今까지 傳해졌다.

3. 「農家月令歌」는 「詩經」의 閨風章과 「禮記」의 月令篇을 根幹으로 하여 이조 때 산문체로서 한문으로 기록된 農書인 「農家月令」, 「田家月令」 등에서 나타난 類似間와 關關句를 對比함으로서 本歌의 傳授 관계 및 유래를 찾을 수 있었다.

4. 「農家月令歌」는 15C 前期歌辭인 「賞春曲」, 「俛仰亭歌」에서 내용상으로 隱逸歌辭가 지닌 自然醉興과 四時景觀의 表現 및 戀主之情의一面을 담습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었다. 아울러 兩班社會의 종류적인 멋과 道의 멋이 그들의 作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5. 「農家月令歌」의 作者 耘逋 丁學游는 李朝 실학자 茶山 丁若鏞이 둘째 아들로서 茶山의 많은 著書와 詩文集에서 직접적인 영향과 감화를 받았음을 짐작할 때 本歌가 제작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본다. 그리고 당시 18C 商業興隆에서 농업이 폐폐하여 짐을 보고 거기에 자극되어 누구나 널리 읽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문 아닌 국문으로 운문적인 장편 연장체 가사로 창작 하였다고 짐, 할 수 있다.

6. 「農家月令歌」는 通詩의 으로 前代詩歌 및 典籍들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共詩의 으로 볼 때 국문 가사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前後에 나카난 내방가사까지 人倫道德, 風俗, 自然에 대한 觀照 및 교훈적인 면에 걸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7. 끝으로 고려 가요 「動動」은 다 같이 月令體歌이지만 本歌와는 性格이 다르다. 「動動」은 매월마다 각각 내용이 완결되었지만 「농가월령가」는 매월마다 句節의 수가 일정하지 않고 내용이 다음달의 節候와 연결된 性格을 띠고 있어 노래 性格상 차이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